



광주시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열린 퇴계와 고봉의 아름다운 만남을 관객참여형 연극으로 구성한 '월봉 로맨스' 공연 현장.

관광상품 개발 청년 일자리 만든다

광산구,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는 특화상품 개발

대학생 현지 가이드 '로컬 크루' 프로젝트 200개 상품 목표

광주 광산구가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는 관광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초반~2000년 초반 출생 세대로 20~30대 청년층이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에 공모해 광주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산구만 최종 선정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탈세계화 추세 속에 20~30대 밀레니얼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일명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역 대학생이 현지 가이드인 '로컬 크루'를 맡아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광산구는 ㈜브라운컴퍼니, 광주권 대학교

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광산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관광전문 ICT 플랫폼 'xCREW'를 갖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브라운컴퍼니는 로컬 크루 모집과 교육, 상품 기획,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광주권 대학교는 인원 모집 및 홍보,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로컬 크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 맛집, 사진 명소, 골목길, 역사문화공간, 캠핑장, 차박 장소 등의 정보를 비롯한 준비물, 코스, 일정 등을 공유·추천하고 이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광산구는 올해에만 50명의 청년 일자리와 200개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과정에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로컬 크루가 본인만의 상품을 영상으로 만들어 회원 56만명을 보유한 'xCREW'의 플랫폼에 올리면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게 된다.

사용자의 구매에 따른 수익과 저작권, 상표권 등은 로컬 크루 개발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근본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황룡강 진수공원, 송산유원지, 오토캠핑장, 월봉서원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관내 관광지를 올해 로컬 크루 등이 활동하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또 내년에는 광주 근교, 2023년에는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및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해 자발적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중국어를 비롯한 일본어, 영어로 번역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마다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경력을 쌓고, 1인 창조기업을 만들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활력 증진' 교육생 모집

전통 고추장 담그기·장 가공 등 6개 분야 ... 25~31일 선착순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 활력 증진 교육 6개 분야 교육생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6개 분야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100가족) ▲웅기종기 전통 장 가공(10명) ▲트렌디한 농산물 스타일링(20명) ▲건강까지 생각하는 우리밀(20명) ▲농산물 활용 와인 제조(20명) ▲농촌융

복합 활성화(20명)이며, 1인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5개 분야는 가수당 10명 내외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올해 7회째 열리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로 비대면 실시간 진행한다. 트렌디한 농산물 스타일링과 '농촌융복합 활성화'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

며, 나머지 4개 분야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광주시청 바로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 전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에 홍보물을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입력해야 교육 참여가 확정된다.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공유 방법은 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교육관에서 2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순쉬온 SNS 첫걸음 교육'을 통해 전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골목상가에도 온누리 상품권 이용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 ... 정부 공모사업 응모도 가능

앞으로 광산지역 골목상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음식점 밀집지역 등은 '상점가' 지정이 안돼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1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0㎡ 범위 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에 따른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비롯한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바꾸어 사업, 화재경보 지원 사업 등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지역 상인 조직이 서류를 작성해 광산구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사유가 없으면 골

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

그동안 이른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은 정부나 기관의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한 탓에 음식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상권은 사실상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광산구의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의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정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지역경제 싹틔움 골목상권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일으켜 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자책 무제한 이용하세요”

광주시립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이용자 모집

광주시립도서관은 “전자책을 권수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밀리의 서재'와 'Yes24 구독형 전자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밀리의 서재 600명(예비인원 30명 별도), Yes24 150명(예비인원 15명 별도)이고, 선착순 접수한다. 예비인원은 구독권 또는 로그인 정보 소지자가 일정 기간 등록하지 않거나 월 4권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후순위 신청자다.

이용 희망자는 시립도서관과 전자책 홈페이지에 모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구독형 전자책) 메뉴에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구독권 또는 로그인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

월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독권 관련 정보를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월 4권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권한이 해지되고, 예비 인원에게 이용권한이 넘어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등도서관 자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이용자를 사전에 접수하는 밀리의 서재, Yes24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에 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보문고 구독형 전자책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차승세 광산구청 비서실장

노무현재단 임명, 임기 2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기 위해 설립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차승세(사진) 광산구청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2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데 차승세 실장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제 6대 노무현 시민학교교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임기는 2년이며, 노무현 재단이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차승세 실장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연으로 이번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면서 “노무현 정신이 퇴색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노무현 시민학교는 민주주의, 인권, 자치분권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등 12년째 시민주도형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